

# 장성 우드랜드 편백림 '치유의 숲'으로 재탄생 한다

### '유휴산림 자산화 사업' 전남 유일 선정...사업비 8억5000만원 확보 편백 족욕탕·무장애산책로 등 조성...담양군과 관광벨트 연계 출발점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 편백림이 인접한 담양 지역 관광벨트와 연계한 '치유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장성군은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유휴산림 자산화 공모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국비를 포함한 상사업비 8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공유지 산림과 시설물을 활용한 소득원 창출, 지역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장성군은 확보한 상사업비를 투입해 북하면 홍길동 우드랜드(병풍로 1022-26) 인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1998년에 조성된 홍길동 우드랜드 산림욕장은 애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체력단련장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소년 이용이 뜸해지자, 치유 콘텐츠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장성군은 북하면 홍길동 우

드랜드 편백림을 활용해 걷기 편한 무장애산책로, 편백 족욕탕 등 산림 치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임산물 체험장 운영, 산촌 지역민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산촌주민 소득 창출도 도모한다.

특히 장성과 인접한 담양군과 산림관광벨트 연계를 추진하는 지자체 간 '상생 관광인프라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은다.

앞서 장성군은 김한중 장성군수의 구상에 따라 산림청에 '장성호-홍길동 우드랜드-담양 용흥사'에 이르는 150억원 규모의 '장성-담양 산림관광벨트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산림자원 유통 활성화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산촌경제의 자생력을 강화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산림청이 주관한 '2023년 유휴산림 자산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성 홍길동 우드랜드.

(장성군 제공)

## 나주 치매가족 산림치유 만족도 높아



### 시, 1가구 1텃밭 활동 지원 12가구 심리 안정·정서 교류

나주시에서 지역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산림 치유프로그램이 정서적 교류를 돕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연구소 유희부지에 '산림치유팜' 15개 텃밭, 평상·그늘막 5곳을 조성, 치매 가족들의 1가구 1텃밭 활동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치유프로그램은 올해 치매환자 3명, 정도 인지장애 9명과 가족 12명 등 총 12가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했다.

치매 환자들은 매일 격주 목요일 산악초 재배 체험을 통해 텃밭에 산악초, 모종을 가족들과 심고 가꾸며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류 기회를 가졌다.

나주시 보건소는 활동 종료 후 참여자들의 심리적 지표 만족도를, 산림자원연구소는 생리적 지표인 뇌

파·맥파 등을 측정했으며 불안·우울·직무스트레스 설문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했다.

측정·조사 결과 노인생활만족도(총점 40점)는 기존 25.67점에서 30.66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관리 중요 요소인 우울척도(15점)는 2.17에서 2.08로 줄었으며 주관적 기억감퇴(14점) 수치 또한 6.08에서 4.72로 감소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우 '우울척도', '부양부담 평가척도', '치매태도척도', '신경정신행동검사척도' 등 4개 항목 모두가 개선·완화되는 수치를 보였다.

서현승 나주시보건소장은 "올해 산림치유 활동 참여자들의 뇌파·맥파 효과 측정 결과 뇌파 두뇌 컨디션이 동일 나이대 평균보다 높고 맥파 자율신경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프로그램 효과가 검증됐다"며 "앞으로도 산림자원을 활용해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치매 관리와 정서적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장성군, 영농 전문가 67명 배출



지난달 29일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제15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이 열렸다.

###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

장성군은 지난달 29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제15기 장성미래농업대학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장성미래농업대학은 15년간 35개 과정을 운영하며, 농업 인제 1662명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개교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장성군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올해는 아열대대학, 아열대심화반, 청년CEO학과 3

개 과정을 운영했다.

지난 4월 입학한 15기 학생 67명은 농사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과정별 19회 수업, 전문농업교육 100시간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특히 영농 기초부터 경영 실무까지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한 청년CEO학과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급변하는 기후 대응과 일류 농업 선도를 위한 농업 인재 육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장흥군 '정보공개청구 무더기 지연' 기관 경고

### 최근 3년간 190여건·국민신문고 청구민원 227건 처리 지연

장흥군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와 '국민신문고' 민원을 장기간 지연처리해 사실상 상급기관으로 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승 의원이 전남도가 일선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극행정분야(정보공개, 국민신문고민원) 점검과정에서 장흥군의 민원미숙 대한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장흥군이 지난 2019년부터 올 2월말까지 3년에 걸쳐 민원봉사와 등 16개부서 소관 업무 총 5157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 가운데

190건을 1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공개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짧게는 31일 길게는 무려 222일까지 지연처리해 청구한 민원인과 마찰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청구민원 처리 역시 총 4212건 가운데 227건이 최소 31일부터 526일간 처리기한(10일) 초과 지연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대외적으로 장흥군이 민원행정에 있어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로 추락되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적극적인 민원대응 전략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철 장흥군 민원봉사과장은 "공개청구민원 대부분이 민,형사적 책임이 뒤따르는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해당 실과소 관련 공무원들이 정보공개후 법적소송 등 심리적 부담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가능한 민원인들과 사전 조율을 거쳐 앞으로는 처리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한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공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나주 영농 폐기물 집하장 4곳 → 18곳 농업인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 도입

### 시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 수립

나주시가 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일 나주시는 농촌사회 고질적 문제인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과 품목별 적정 배출·처리를 위한 '민선 8기 영농 폐기물 처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영농 폐기물 보관 시설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배출 편의를 돕고 배출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신규 도입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보라·롱갱 등 식물성 잔재물의 경우 파쇄기 무상 임대, 고령농가 작업 인력 지원을 통해 퇴비화를 추진하고 폐비닐, 농약병 등 폐기물은 수거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다.

시는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영농 폐비닐, 농약병 등 수거를 위한 공동 집하장을 기존 4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고 수거량과 품질에 기준한 수거장료를 지원,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또 시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농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50% 감면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대형 폐기물 배출 대상은 토지 여건 상 퇴비화가 불가능한 식물성 잔재물을 포함해 차광막, 반사필름, 비닐호스, 부직포, 기타 농자재 등이다.

현재 수수료는 1톤 마다 기준 500kg이하는 2만원, 1톤 이상은 4만원 수준으로 제도가 시행되면 절반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밭 불법 소각으로 대기 오염과 산불, 민원을 야기했던 보리밭, 갯대, 전정가지 등 영농 부산물은 경작지에서 파쇄 후 퇴비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마을별 '영농

부산물 일제 파쇄의 날'을 지정하고 파쇄기 무상 임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 동수동 본점을 비롯한 사업소 7곳에 '잔가지 파쇄 제조기', '자주식 목재 파쇄기', '트랙터 부착형 목재 파쇄기' 등 유형별 47대를 보유하고 있다.

산불 위험성이 높은 산림인접지역 고령 농가에는 파쇄기 작업 인력을 지원하고 기존 보릿짚 환원(농경지 퇴비화) 사업 품목도 고춧대, 콩대 등 전체 식물성 잔재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시는 폐기물 수거 전용 집게 차량을 구입, 원예작물 재배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상시 수거 가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폐기물 무단 방치와 산림인접지역 논·밭 불법 소각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민선 8기 영농폐기물 종합 대책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해 영농 부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별 적정 처리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관행적인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산불 위험을 줄이고 깨끗한 농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 강진군, 전남 공공보건의료 성과 '최우수'

### 모바일 앱 '워크온' 이용 비대면 걷기 운동 호평

강진군이 '2022년 전라남도 공공보건의료 성과대회'에서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22개 시군과 공공의료기관이 제출한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1차 평가를 거쳐 최종 4개팀이 우수사례 경합을 벌였다.

강진군은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생활 속 걷기 실천'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진군 보건소는 장기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축된 국민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 '워크온'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운동 '워크온 챌린지'를 진행했다.

워크온 챌린지는 매일 1일부터 20일까지 20일 동안 14만 보를 달성하는 군민에게 지역상품권과 소정의 홍보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진군 워크온 가입자는 3430여명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군은 민선8기 강진군 군수 취임 후 공약사업으로 '스마트한 군민 건강 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 스마트한 걷기 군민 3000명 확보를 목표로 당초 선착순 지급이던 모바일 상품권을 목표 달성자 전원에게 지급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가입자 확보를 위해 담당부서 직원들이 읍면별 걷기 동호회 결성을 독려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함께 11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며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서현미 강진군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역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동절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함평군, 포획단 29명 선발

함평군이 내년 3월까지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고라니 같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한다.

함평군은 지난달 모집 공고를 통해 피해방지단 29명을 선발했으며, 포획업무 처리 수칙과 안전교육을 완료했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이 읍·면사무소에 신고 시 현장에 출동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활동을 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과 폐사체 예찰을 비롯한 밀렵 감시, 부상 동물 구조 등 활동도 함께 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